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기호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엔 점심식사 때마다 전쟁 이야기가 화두로 오르내린다.

세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1950년대보다 정과 간의 갈등은 더 격해졌고, 그에 따른 적의는 더 날카로워졌고 첨예해졌다.

과학이 먹히지 않는 이유

크면 좋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설명 사흘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물고 울 여파는 무시무시한 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아 알고 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 중인 상황들. 그 안에서 최고권력자들을 뺀 나머지 국민들은 오로지 고통만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 간의 전쟁이 갖고 있는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이즈음의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들이란, 대부분 우연적이고 국지적인 충돌들 때문이다(세계대전의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가 발사한 총 한 발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런 역전된 상황 때문에 국민은 의심

각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사건을 조사했다면 지금 같은 불신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 발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다면, 그 신빙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하질 못했다, 그래서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 더불어 이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해왔던 '말 뒤집기'의 사례들이 겹쳐, 불신의 폭은 더 넓어지고 강조해오고, '과확'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순 없지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선거 종료로 기점으로, 이 송곳 같은 긴장 상태가 다소 누그러지길, 그 마음 하나뿐이다.

더불어 불안을 조장하는 권력들이란, 대부분 불신의 눈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다. 영혼을 잠식당하지 않은 국민만이 권력을 올바르게 감시할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이 또한 권력자들만을 위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국민의 길이기도 하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여당의 독선·독주 심판한 6·2선거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는 그야말로 준엄했다. 한나라당 압승으로 예상됐던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선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무난한 승리를 점쳤으나 만만치 않게 '검제표'가 민주당에 쏠리면서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정치, 사회적인 안정론보다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光銀매각 지역경제 최우선 고려해야

지난 2001년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던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광주은행 매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금융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 시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중견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기업경기가 최악

그러한 점도 걸림돌이다. 시민 주주 공모방식으로 광주은행의 시중거래가로 추산되는 1조5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은행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지 벌써 10년째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기 고

추태승



의료 칼럼

두발이 사람의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헤어스타일을 상황에 맞추어 혹은 기분에 따라 연출한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의 경우 탈모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모치료 성공하려면

있으며, 취업이나 사업 혹은 진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탈모로 인한 고민이 성인 남성뿐 아니라 어린 학생, 또 탈모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생각되었던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탈모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탈모치료의 시작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자의 원인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머리성향의 유전자가 있다고 모두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탈모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탈모치료방법에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과 FDA에서 인정한 치료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진행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것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두피관리, 메조테라피를 통하여 모낭 세포에 직접 영양분을 부여하는 방법과 고주파 및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낭 세포를 활성화해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전문치료 못지않게 환자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웰클리닉 대표원장〉

장갑수



매년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러내 국민화합을 다짐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온 국민이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에 감사하고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집어 떠오를 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복된 지 65년이

특히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나라사랑 큰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시간이 지났고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60년이 흘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던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6·25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보훈청장〉

나무 쿼츠 이벤트를 비롯한 무등경기장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시구행사, 나라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외에도 지역방송사 주유 뉴스앵커들의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부착, 캠페인 홍보 등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은 멀리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직결되며, 가까이는 국가안보 그 자체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며칠 후면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 개최된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우리 태극전사들을 위해 거리응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6월이 가기 전에 가까운 보훈행사장이나 국립묘지 또는 현충탑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한 송이 꽃을 바치고 이웃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있다면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월드컵의 열기보다도 더 값진 일이 아닐까 싶다.

늘어나는 가계빚... 개인파산 위험수위

가까운 지인 중에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늘 같은 반찬이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겹고, 퇴근 후 벌어들이는 돈까지 합쳐 월평균 160만 원 정도 되는 수입만으로 견뎌내기 벅하다.

확 쪼그라든다. 이 때문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빚은 늘어만 간다. 그런 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유영범·광주시 동구 소재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無等鼓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기세가 무섭다. 20만 가입자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출시 6개월 만에 70만 명에 육박했다.

덕분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무선인터넷 사용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앞으로 3년간 관련 분야에서 2만6600명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는 4조9000억 원의 신규시장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세계 IT업계는 격투에 휘말렸다. 이른바 '플랫폼(platform) 전쟁'이다. 어떤 서비스가 단말기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단말기 하나로 정보소득, 업무수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APP)으로 플랫폼을 구성, 200조 원의 우량기업이 됐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운영체제(OS), 다양한 앱, 앱 거래소를 망라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효과를 발휘

IT 전쟁은 확산일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유튜브, 트위터 등이 모바일, PC, 가전,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IT 분야의 플랫폼 선점에 나섰다.

전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작됐다. 2일 투표로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새로 뽑혔다.

www.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